



● 개혁신학 양서연재 5

# 성령의 인치심과 히로니무스 장키우스

(Hieronymus Zanchius, 1516-1590)

**이 글은** 화란 아플도른 신학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수인 Willem van't Spijker(1926- ) 박사의 *De verzegling met de Heilige Geest* (Kampen: De Groot Goudriaan, 1991)라는 단행본 중 일부이다.

판 스피아커교수는 197년 화란자유대학교에서 '마틴 부씨의 직분론'(De ambten bij Martin Bucer)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졸업논문은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성적(magna cum laude)을 받았다. 그는 유틀레흐트(Utrecht) 지역의 화란기독교개혁교회(Christelijk Gereformeerde Kerken, CGK)에서 다년간 목회 후 1972년부터 교단 신학대학인 이플도른 신학대학(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CGK in Apeldoorn)의 교회사 교수로 25년 간 봉직한 후 1997년에 은퇴하였다. 칼빈과 부씨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씨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씨 연구와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의 교회론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학자이다. 현재 활동 중인 그의 제자들로는 이플도른의 Herman Selderhuis교수, 장신대의 최윤배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Ecclesiastical Office in Thought of Martin Bucer (E. J. Brill)>, <Calvin: Die Kirche in Calvin ihr Geschichte (V & R)>, <Luther en Calvijn>, <Luther: Belofte en ervaring>, <Reformatie en geschiedenis>, <Triptiek van de geschiedenis>, <Geest, woord en kerk>, <Gemeenschap met Christus> 등이 있다. 저자의 동의를 받아 본서를 계속해서 번역 연재할 예정이며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들을 함께 번역 소개할 계획이다.

앞선 글에서 칼빈이 성령의 인치심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는 이 주제를 성경의 증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이를 통해서 인치심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신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증거는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나타나며 종종 함께 다루어진다. 성령의 인치심을 떠나서는 신앙의 확실성을 생각할 수 없다. 칼빈은 자신의 신앙의 정의에 인치심의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서 양자를 결합시킨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에 말씀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이를 우리 마음에 인치신다. 이렇게 우리는 결단력을 지닌 확실성을 선물로 부여받았는데 이는 우리를 모든 종류의 시험으로부터 견디도록 만든다. 칼빈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추구한다. 인치심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확실성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대한 확실성이다. 그리고 이 확실성은 성화라는 개념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매일 새롭게 되는 새로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다. 칼빈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개념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모든 구원 사건들의 모든 측면들을 구원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묘사할 수 있었다. 이 개념은 성례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이 은혜가 효력을 지니도록 만드는 표식이며 인장으로써 그 사용을 통해 신자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신을 지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칼빈이 성경에 아주 충실하였다고 간주한다. 칼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꺼이 언급되는 성경의 해석자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해설자이다.

그러나 칼빈 이후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이렇게 포괄적인 주장이 개혁신학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개혁신학은 여러 곳에서 이를 논의의 주제로 삼

았지만 이는 단지 그 입지가 좁아졌음을 뜻하는데 불과한 것이었다. 성령의 인치심보다 성령의 증거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 또한 이러한 발전에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동시에 성례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성례전에 관하여 로마교와 종교개혁 사이에 중요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종교개혁 자체 내에 존재하였던 성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인치심의 개념을 폐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던 유일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히로니무스 장키우스(Hieronymus Zanchius)이었다. 그는 종교개혁 시기에 가장 박식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렸다. 그는 중세 스콜라 신학으로 훈련된 부셔(Bucer)와 칼빈의 영향력 아래 변화되었다. 그는 종교개혁으로 전향하였으며 스트라스부르에서 신학교수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왜곡된 예정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를 떠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르시누스(Ursinus)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 후 팔츠(Paltz)지역이 다시 루터란 영역이 되었을 때 개혁주의자들이 피난해 와서 수용되었던 노이슈타트(Neustadt)에서 다시 신학교수가 되었다. 장키우스는 그의 시대에 단지 학문을 지닌 자로서 뿐 아니라 현명한 신학자로 높이 평가되었다. 그에게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과제가 위탁되었는데 이는 개혁주의 유럽을 모두 체험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이 과제를 완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러한 과제가 위탁되었다는 사실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크나큰 신뢰를 받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그는 잊혀진 존재이다. 그는 스콜라 신학자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이는 신학자를 향해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표현에 해당된다. 그는 성령의 인치심에 관하여 본질적인 것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그가 이 주제

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것을 집필한 부서와 칼빈 모두의 후계자로 간주되므로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또한 장키우스가 자신의 사고를 주로 에베소서 주석을 통해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덜 놀라게 한다. 그의 사고는 성령의 인치심과 관련하여 개혁주의 전통 내에 공통적인 것에 대한 반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르시누스가 저술한 것은 특히 성례를 통한 인치심에 관한 견해가 주된 것이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활동했던 다른 저명한 신학자들은 성령에 관한 이 주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유니우스(Junius)와 고마루스(Gomarus)를 비롯한 다른 학자들은 이를 다루지 않았다.

먼저 제 2 종교개혁(De Nadere Reformatie, 역주: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과 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리가 아닌 삶과 경건에 있어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17-18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개인적 확신을 획득함으로써 성령의 사역에 대한 관심을 되찾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개혁과 제 2 종교개혁 사이에 다른 모든 종류의 행위들이 권장되는 열린 공간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여전히 분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장키우스가 저술한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는 에베소서 주석에서 특히 1:13, 14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578년부터 장키우스는 이 서신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으며 이 주석서는 1594년에 출판되었다. 이 주석은 19세기 말에 개혁주의 도서관(Gereformeerde Bibliotheek)의 장서에 속했으며 암스테르담에서 1888년에 다시 출판되었다.

장키우스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바로 칼빈과 부서에게 가장 중심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구원의 적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의 차원에서 발생한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

며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만약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가 스스로 우리를 그에게 연합시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와 연합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의 삶과 피를 취하신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서 그는 우리와 연합하게 되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용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육체를 통한 우리와의 이 연합은 더욱 친밀한 연합,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안에서 그와 연합되는 것을 요청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되시며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는 참된 몸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그와 연합함으로서 우리가 그의 신적 본성을 취하게 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첫째 연합을 가능하게 하신다. 동일한 성령께서 또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교제에 대한 두 번째 형태를 이룩하신다. 이 두 번째 교제는 영적 교제이지만 전혀 비실제적인 교제는 아니며, 오히려 이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구원의 실제에 해당된다. 장키우스가 부서와 칼빈의 원래적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 것뿐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견해를 더욱 강조하여 구원에 관한 교리가 교회에 관한 교리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적 경건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친밀함과 결속을 강조해왔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교제는 경건의 비밀을 유지해왔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하는 칭의에 관한 기초가 놓여 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윤리, 즉 경건하고 올바른 삶 또한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경건은 교회에서 인정된다. 그리

스도와 의 교제, 즉 그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은 모든 경건의 뿌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제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참된 경건의 실천’은 본질적으로 교회에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의 교제’를 강조하는 신학자들은 이러한 교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지만 항상 이를 교회에 속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를 염두에 둔 신학자들은 교회의 조직이 성경의 가르침에 순응해야 함을 내세웠다. 사람은 비가시적 세상이나 비가시적 교회로 도피할 수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의 교제를 삶의 비밀로 생각할 수 없다. 이 비밀은 가시성, 즉 가시적 거룩함, 공교회성 그리고 통일성을 추구하는 교회적 삶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성경 그 자체와 종교개혁의 메시지에 근거를 둔 장키우스의 사교세계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그의 설명을 접하게 된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견해를 통해서 장키우스가 그 시대의 순수한 이미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는 당대의 개혁신학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베자(Beza)와 같은 사람은 장키우스를 당대 개혁주의 세계의 사교방식과 내용을 대변하는 인물로 간주하였다. 그는 자신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그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한 분량의 지면을 할애하였다. 먼저 장키우스는 이 주제에 관련된 당대에 가장 탁월한 견해들을 소개하였다. 이 견해들은 우리가 지금 인치심을 둘러싼 문제들을 다루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질문은 ‘당신이 믿고 난 후에’라는 구절과 관련하여 인치심의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식으로 그 마음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복음이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성령께서 이러한 사역을 행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그는 이미 효율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영을 그 마음속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장키우스가 제기하는 질문은 에베소서 1:13에 나타나는 “~ 한 후에”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직결된다. 장키우스는 믿음의 은사와 다른 성령의 은사 사이의 구별에 동의하기를 거절한다. 성령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은혜은사(카리스마)는 믿음을 따라 주어진다. “이 질문은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러한 구별이라는 도움을 통해서 해결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사도가 성령의 가시적 은사로 표현되는 외적 인치심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는 여기에서 오히려 내적이며 영적인 인치심을 말하는데 모든 참된 신자들이 이렇게 인치심을 받는다.

장키우스는 이러한 이분화를 올바르게 거부한다. 이 이분화는 먼저 믿음을 성령의 은사로 말하고 그 후에 방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뜻하는 은혜은사가 주어짐을 뜻한다.

대신에 장키우스는 다른 구분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개혁주의 역사에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는 성령이 믿음을 부어주실 때 주어지는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관하여 논한다. 하나는 지성에 대한 조명으로서는 이는 믿음의 시작 또는 시작되는 믿음을 뜻한다. 성령의 둘째 사역은 믿음이 확고하고 확실해져서 모든 의심을 물리치게 되는 강화를 뜻한다. 장키우스는 사도가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서 말할 때 사실상 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는 시작되는 믿음과

확증된 믿음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분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가? 장키우스는 신자들을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보내지는 편지에 비유한다. 장키우스는 편지, 학위증서, 그리고 계약서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함에 있어서 먼저 이들을 기록하고 그 후에 인장을 통해 기록된 바를 확증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인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는 기록된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신다. 그는 먼저 신자들을 읽을 수 있는 편지로 만드신 후에 자신이 일하신 것을 인치시고 확증하신다. “선택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역을 보라.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기록하시는 것이다. 믿음의 은사를 통해 그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실 때,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빛을 발할 때, 믿음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성령의 둘째 사역은 더욱 강력한 확증을 위해 이 편지, 즉 우리를 인치시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은사와 은혜은사를 구분하는 대신에(장키우스는 이러한 구분을 올바르게 거부하였다) 시작되는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믿음, 즉 성령의 구별된 둘째 사역의 결과로 독특하게 강화된 믿음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 또한 이중적 은혜를 주장했음을 되새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드러진 차이임이 분명하다. 결국 장키우스는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논하는 셈이다. 그는 본문에 언급된 ‘~한 후에’ 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하면서 이 단어가 반드시 시간적 의미에서 이해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이것이 원인적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도 않는다. 시작되는 믿음이 존재하며 이 믿음은 성령의 구별되며 인치시는 사역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고 장키우스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칼빈의 이해와는 다르다. 칼빈이 성령의 인치심을 자신의 믿음에 관한 정의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는 그를 오해하는 것이 된다. 믿음에 관한 칼빈의 정의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지성에 대한 계시와 마음에 인치심. 칼빈이 서로 관련시킨 것을 하나로 묶어버림으로서 믿음과 믿음의 확실성, 시작되는 믿음과 인치심을 받은 믿음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칼빈이 믿음에 관해서 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시작과 시작되는 믿음이 지니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서 그 결과 나중에 인장이 새겨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가? 또한 다른 질문이 제기된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요구하고 희망할 수 있음을 뜻하는가? 또는 이러한 성령의 둘째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뜻하는가? 성령의 인치심이 아마 소수의 사람들에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획득되는가?

믿음 자체가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리 그 시작에 있어서 그것이 작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확실성을 지닐 수 있고 지니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확실해진다. 그렇다면 인치심은 단지 성령이 확증하시는 행위로서 나중에 확신을 가져다주는 것에 불과한가?

장키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에서 제 2 종교개혁의 몇몇 대표적 주창자들이 확실성으로 이끄는 성령의 이후 사역에 관해서 가르쳤던 것을 연상시킨다. 이 점에 있어서 개혁주의 스콜라신학과 제 2 종교개혁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양자 사이에 어떤 패턴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 스콜라주의자는 경건주의자로 불릴 수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2-3 백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중세시대에 예술을 이해하여 사고의 세계를 경험의 세계와 연관시킬 수 있는 많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있었다. 경건주의자는 사고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강요되어진다. 사고하는 사람에게 지성주의자란 별칭이 주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뒤집어보도록 하자. 장키우스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면서 후대 개혁주의적 경건주의의 본질을 해석하였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스콜라주의적 방법으로 이를 행하였는데 이것이 항상 부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겨져 있다: 장키우스가 개혁주의적 노선을 떠나서 구원의 확실성과 관련하여 위험을 초래하였는가?

장키우스는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인치시는가에 관한 것이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셨다. 동시에 그는 우리를 인치신다. 이 장(chapter)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성부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1:13~14에서 성부는 그리스도로부터 구별되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 또한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지적함에 있어서 장키우스는 올바른 견해를 표명한다. 그는 축복을 성부 하나님께 되돌리고 있다. 화해는 성부의 일이며 인치심 또한 그의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를 결코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빈번하게 인치심을 마치 성령 스스로가 이를 행하시는 사역으로만 언급한다. 성부는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서 우리를 인치신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회피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게 된다. 우리는 인치심을 삼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둘째 질문은 누가 인치심을 받는가에 관한 것이다. 장키우스는 에베소서 1:13에 언급된 방식과 같이 단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인치심을 받는다고 답한다. 유태인들과 이방인들에게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나온다. 여기에서 장키우스는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마음에 새겨진 법을 언급한다. 이런 방식으로 믿는 자들은 편지가 된다. 이 편지에 인장(seal)이 찍힌다. 장키우스는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켰으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라는 디모데 후서 2:19을 언급한다. 버림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인장을 찾아볼 수 없다.

장키우스는 이를 불신자들도 지닐 수 있는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인장과 구별하여 내적 인장이라고 부른다. 성례를 통한 외적 인장은 약속의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인장으로부터 구별된다. 옛 언약에도 성령이 실제로 약속되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현실적으로 연결시키는 분은 성령이시다. 장키우스는 이와 관련 해서부서와 갈빈이 지녔던 중심적 사상을 확고화하였으며 구체화하였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뜻한다. 첫째,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람이 구원을 기대하거나 찾을 수 없음을 뜻한다. 둘째, 구원에 실제로 참여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며 이 머리와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그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이는 우선 신적 결정에 있어서 숨

겨진 관계로 알려진 예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가 그의 영의 능력으로 실제로 우리를 자기 자신과 연합시키신다. 이것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와와의 참된 연합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따라서 성부께서는 이 머리 안에서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인지했으며 또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셨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장키우스는 인치심의 목적을 특히 우리를 위한 유익에서 추구한다. 이에 관한 은유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에 마크를 부착하는 상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장키우스는 다른 은유를 사용하는데 이는 입양된 자녀에게 문서로 된 증거를 제시하는 아버지의 은유이다. 즉 그가 받을 유산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이 사라지게 되며 확실성이 더욱 강화된다. 성부는 우리 마음 속에 자신의 뜻이 새겨지기를 원하신다. 모든 자녀에게 성령이 약속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약속의 영이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이유는 특히 그가 약속을 확증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성령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거룩하신가? 이는 단지 그의 거룩한 본질과 속성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 때문이다. 성령은 거룩함을 불러일으키신다. 그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자신의 이미지를 심어 넣으신다. 그리고 이는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장키우스는 인치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치심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신적 행위로서 하나님 자신에서 비롯된 성령의 이미지에 대한 자

국이며 그 마음과 가슴에 새겨진 것이다.’ 이는 완전한 빛, 지혜, 의로움, 거룩함, 진리, 사랑, 그리고 선함으로서 성령에 속한 고유한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된다.

장키우스가 여기에서 특별히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표현에 있어서 본질적 동질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성령의 거룩함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성령의 시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새로운 하늘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새로운 하늘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면, 우리 의지에 죄를 싫어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일부로 삼는 새로운 하늘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해 진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음을 증거한다.

장키우스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한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을 남긴다. 인치심 전체와 관련해서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이 약속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지니게 되는가? 우리가 약속을 통해 부여받은 확실성은 기쁨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성령의 열매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실성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내던져서 구원에 관하여 강한 주관적 접근 방법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장키우스는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놓여 있으며 이는 단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확실성도 없다.

성령은 먼저 우리를 읽을 수 있는 편지로 만드신다. 그 후에 이 편지에 그의 인장을 봉인해서 이 편지가 참되고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만드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이렇게 살아 있는 편지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죄의 흔적을 발견하고 성령의 열매를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확실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칭하는 위로가 칭의를 받은 자들, 즉 중생한 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길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키우스가 종교개혁의 마지막에 서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자기 부인이라는 길에서만 발견되는 순수한 은혜와 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죄에 대한 용서를 주장하는 루터의 자유롭게 하는 설교는 어떻게 되었는가? 제 2 종교개혁이 이 질문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